

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5년 6월 22일
제2058호

주임 신부: 배하정 다니엘
사도 회장: 안민철 미카엘
사무실: 703 968 3010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메일: sthasang@gmail.com

보좌신부: 양종욱 대건 안드레아
연령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팩스: 703 968 3013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로마 5,5) · 희망의 순례자들



〈성 정 바오로 성당〉

<부속가>

찬양하라 시온이여, 목자시며 인도자신, 구세주를 찬양하라.
정성다해 찬양하라, 찬양하고 찬양해도, 우리능력 부족하다.
생명주는 천상양식, 모두함께 기념하며, 오늘특히 찬송하라.
거룩하온 만찬때에, 열두제자 받아모신, 그빵임이 틀림없다.
우렁차고 유쾌하게, 기쁜노래 함께불러, 용약하며 찬양하라.
성대하다 이날축일, 성체성사 제정하심, 기념하는 날이로다.
새임금님 베푸잔치, 새파스카 새법으로, 낡은예식 끝내도다.

새것와서 옛것쫓고, 예표가고 진리오니, 어둠대신 빛이온다.
그리스도 명하시니, 만찬때에 하신대로, 기념하며 거행한다.
거룩하신 말씀따라, 빵과술을 축성하여, 구원위해 봉헌한다.
모든교우 믿는교리, 빵이변해 성체되고, 술이변해 성혈된다.
물질세계 넘어서니, 감각으로 알수없고, 믿음으로 확신한다.
빵과술의 형상안에, 표징들로 드러나는, 놀랄신비 감취었네.
살은음식 피는음료, 두가지의 형상안에, 그리스도 온전하다.
나눔없고 갈림없어, 온전하신 주 예수님, 모든이가 모시도다.
한사람도 천사람도, 같은주님 모시어도, 무궁무진 끝이없네.
선인악인 모시지만, 운명만은 서로달라, 삶과죽음 갈라진다.
악인죽고 선인사니, 함께먹은 사람운명, 다르고도 다르도다.
나뉘는성체 조각마다, 온전하게 주 예수님, 계시움을 의심마라.
겉모습은 쪼개져도, 가리키는 실체만은, 손상없이 그대로다.
천사의빵 길손음식, 자녀들의 참된음식, 개에게는 주지마라.
이사악과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은만나, 이성사의 예표로다.
참된음식 착한목자, 주 예수님 저희에게, 크신자비 베푸소서.
저희먹여 기르시고, 생명의ปัง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
전지전능 주 예수님, 이세상에 죽을인생, 저세상에 들이시어,
하늘시민 되게하고, 주님밥상 함께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다해)

제 1 독 서 창세 14,18-20 |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다.

화 답 송 시편 110(109) | ◎ 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제 2 독 서 1코린 11,23-26 | 여러분은 먹고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복 음 루카 9,11ㄴ-17 |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¹¹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병을 고쳐 주셨다.

¹²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열두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¹³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제자들은 “저희가 가서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사 오지 않는 한,
저희에게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¹⁴ 사실 장정만도 오천 명가량이나 되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대충 쉰 명씩 떼를 지어 자리를 잡게 하여라.”

¹⁵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모두 자리를 잡았다.

¹⁶ 예수님께서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¹⁷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광주리나 되었다.

복음 묵상



〈빵과 물고기의 기적〉, 김옥순 수녀 作

복음에서 예수님은
빵과 물고기의 기적으로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를 확장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이웃을 사랑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웃에게 다가간다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사랑은 영적으로 궁핍한
우리 모두를 성장하게 하는
놀라운 음식입니다.

복음 묵상

먹는 일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 행위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시자마자 가축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이셨던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처지에 계셨기에
인간의 그 원천적 필요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사명은 인간에게 영원히 양식을
제공하는 일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승천하신 뒤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양식이 되시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린 군중 오천 명, 또는 사천 명을
먹이시는 이야기가(루카 9,11ㄴ-17 참조) 나머지
복음서에 모두 나오는데(마르 6,30-44; 8,1-10; 마태
14,13-21; 15,32-39; 요한 6,1-14 참조), 이 본문들
가운데 대부분이 음식을 ‘사는’ 행위를 언급합니다.
물건을 사고파는 것은 시장 경제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기에 굳이 감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군중을 마을로 보내 음식을 사게 하자고 하며 시장
경제의 논리를 끌어들이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나눔과
선물의 논리를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루카 9,13).

그때까지 제자들은 군중에게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자기들에게
나눌 것이 있음을 발견하면서 시장 경제의 논리가
나눔의 신비로 대체됩니다. 나눔다는 것은 자신의
일부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몸과
피로써 당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선물로, 생명을 위한
양식으로 내주십니다.

지난해 세계 인구의 9.1%인 7억 3,340만
명가량이 굶주림으로 고통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국춘심 방그라시아 수녀>



〈최후의 만찬(부분), 후안 데 후아네스, 1560년대〉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

- 엎드려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하느님,
두 가지 형상 안에 분명히 계시오나 우러러 뵈울수록 전혀 알 길 없기에
제 마음은 오직 믿을 뿐이옵니다.
- 보고 맛보고 만져 봐도 알 길 없고
다만 들음으로써 믿음 든든해지오니
믿나이다, 천주 성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참된 진리 없나이다.
- 십자가 위에서는 신성을 감추시고 여기서는 인성마저 아니 보이시나
저는 신성, 인성을 둘 다 믿어
고백하며 뉘우치던 저 강도의 기도 올리나이다.
- 토마스처럼 그 상처를 보지는 못하여도
저의 하느님이심을 믿어 의심 앓아오니
언제나 주님을 더욱더 믿고 바라고 사랑하게 하소서.
-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사여,
사람에게 생명 주는 살아 있는 빵이여,
제 영혼 주님으로 살아가고 언제나 그 단맛을 느끼게 하소서.
- 사랑 깊은 펠리칸, 주 예수님, 더러운 저를 주님의 피로 씻어 주소서.
그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을 모든 죄악에서 구해 내시리이다
- 예수님, 지금은 가려져 계시오나
이렇듯 애타게 간구하오니
언젠가 드러내실 주님 얼굴 마주 뵈고
주님 영광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 ◎ 아멘.

6월 27일(금)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은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공경하며 그 마음을 본받고자 하는 날이다. 이 대축일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다음 금요일에 지내는데, 예수 성심이 **성체성사**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한국 천주교회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권고에 따라, 1995년부터 해마다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에 **‘사제 성화의 날’**을 지내고 있다. 이날은 사제들이 대사제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음 선포의 직무를 더욱 훌륭히 수행하는 가운데 완전한 성덕으로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날이다. 또한 교회의 모든 사람이 사제직의 존귀함을 깨닫고 사제들의 성화를 위하여 기도와 희생을 바치는 날이기도 하다.

사제를 위한 기도

-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 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축성하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 주소서.
-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 주소서.
- 사제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 ◎ 아멘.

1 교황 주일 2차 헌금

- 교황 주일(6월 29일)을 맞아 이번 주일에 교황님의 사목 활동을 돕는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이 헌금은 전 세계 교회의 일치를 드러내며 빈곤과 재난으로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입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연중 제12주간 모임 안내

- 6월 22일(일) : 루카회 월례 모임, 오후 12시
- 6월 22일(일) : K of C 친교 모임, 오후 12시(나눔터)
- 6월 22일(일) : 남성 꾸르실로 봉사자 회합, 오후 2시
- 6월 25일(수) : 회장단 회의, 오후 6시
- 6월 27일(금) : 예수 성심의 밤, 저녁 7시
- 6월 27일(금) : 울트레아 회합, 저녁 8시
- 6월 27일(금) : 베드로회 자매 모임, 저녁 8시

3 연중 제13주간 모임 안내

- 6월 29일(일) : 하계 성경학교 워크숍, 오전 11:20
- 6월 29일(일) : 고국 성지 순례단 모임, 오전 11:30
- 6월 29일(일) : 과달루페 성지 순례단 모임, 오전 11:30
- 7월 3일(목) : 폐제 미사 및 성체 강복
- 7월 4일(금) : 십자가의 길
- 7월 5일(토) : 첫 토요일 성모 심신 미사

4 7월 첫 주간 전례 안내

- 7월 3일(목) : 저녁 7:30 폐제미사, 성시간 (미사 30분 전 폐제 성가 연습)
- 7월 4일(금) : 저녁 6:50 십자가의 길, 7:30 미사
- 7월 5일(토) : 오전 9시 묵주 기도와 묵상, 고해성사
오전 10:30 첫 토요일 성모 심신 미사

5 CYO WorkCamp 안내

- 일시 : 6월 21일(토) - 27일(금)
- WorkCamp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예수 성심의 밤

- 일시 : 6월 27일(금) 저녁 7시부터
- 처음으로 예수 성심의 밤을 봉헌하려 합니다. 우리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드리기 위해 마련한 시간입니다. 많은 교우분들께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성심의 밤 시작은 저녁 7시입니다. 시간 확인 꼭 부탁드립니다.

7 멕시코 과달루페 성지 순례단 모임

- 일시 : 6월 29일(일) 오전 11시:30, (B-3)
- 신청하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고국 성지 순례단 모임

- 일시 : 6월 29일(일) 오전 11:30, (B-1)
- 신청하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9 2025년 하계 성경학교 워크숍

- 일시 : 6월 29일(일) 오전 11:20 - 오후 3시
- 대상 : 1-6학년 수강생과 성경에 관심 있는 신자
- 신청 : 6월 23(월)까지 교육부로 신청 (\$20, 점심 제공)
- 문의 : 윤영미 로사리아 (703) 850-2968
- 등록 링크 : <https://forms.gle/LW7aTMB2Gca95aQd6>



10 볼티모어 한국 순교자 성당 성전 건축 기금 마련

- 일정 : 6월 28일(토) - 29일(일) 모든 미사
- 볼티모어 한국 순교자 성당 건축을 위해 신부님께서 우리 본당을 방문하십니다. 교구는 달라도 우리 곁에 있는 한인 성당 건축에 도움을 주시기를 청해봅니다. 우리도 예전에 어려움을 겪어 보았기에 그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당일 2차 헌금과 약정을 받으실 것입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1 7월 봉성체는 쉽니다.

- 7월 4일(금)은 독립 기념일 공휴일로 이번 달 봉성체는 쉬겠습니다.

12 꾸르실로 교육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 7월 3일(목)부터 6일(일)까지 꾸르실로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에 참여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 영적 예물 봉헌 받습니다.

- 7월에는 배하정 다니엘 주임 신부님과 양종욱 대건안드레아 보좌신부님, 다니엘 부제님, 안 다니엘 수녀님 모두 축일을 맞습니다. 신부님과 부제님, 수녀님을 위한 영적 예물을 받습니다. 성당 입구에 있는 영적 예물 용지를 작성해서 6월 29일(일)까지 봉헌함에 넣어 주세요.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 주보 공지 안내

- 7월부터 주보는 본당 소식만 실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주보 편집팀을 구성하기까지 준비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시며 기다려 주시면 몇 달 후 이번 주보를 보시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5 주보 편집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2014년 10월부터 새로운 편집으로 <하상주보>를 제작해 주신 주보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0년 동안 교회의 가르침과 교구 및 본당 소식을 알리고자 애쓰신 편집위원과 디자인팀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중미사 예물봉헌

06/22 이번 주 라우던 1반

06/29 다음 주 라우던 2반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5년 6월 15일 (삼위 일체 대축일)

봉헌금	\$ 8,641.00
교우금	\$ 4,310.00
교우금(신용카드)	\$ 4,035.00
감사 헌금	\$ 500.00
온라인 봉헌	\$ 3,540.00
합계	\$ 21,026.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2025년 6월 26일(목) 오후 5:00 - 6:00
2025년 6월 27일(금) 저녁 8:00 - 9:00
2025년 6월 29일(일) 오전 6:00 - 7:00

- 가톨릭 소식 2. 주일강론
- 가톨릭 영상교리 : 교회란 무엇인가
- 미니 시리즈 순례 : [8회] 알프스 도나우 수도원

Find a Mass near me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 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www.masstimes.org

휴가 중에도 주일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요한 6,51)



▷ 미사 전·후 성당 입구에서 침묵을 지켜 주세요



미사 시간 안내 (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